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아쉬움 뒤로 첨단바이오 산업 지속 육성

‘오가노이드 기술 제외’... 정부, 의약품 분야에만 지정
“전북이 많은 강점 갖고 있다는 것 알게 된 것도 성과”

전북자치도가 정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최종 선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오가노이드 재생의료제 산업 분야에는 선정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기반 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하거나 재가공해 만든 장기유사체를 의미하며 대체로 신약개발 및 질병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오가노이드는 산업화 기반이 없고, 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 R&D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바이오의약품 산업분야에만 특화단지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바이오산업 분야를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이다.

산업부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동물세포 배양 및 정제기술과 오가노이드(유사 장기) 분화 및 배양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전북을 비롯해 충북, 고양, 수원, 성남, 시흥 등 6개 지자체가 열린 경쟁을 벌여왔다.

전북자치도가 오가노이드 분야로 도전장을 낸 이유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규제완화를 통해 그간 각종 규제로 정체된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향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급 인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고 특히 반도체나 2차전지와 달리 아직 국내에 뚜렷한 강자가 없어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지역이 연구개발 특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연구 개발 사업화 및 창업촉진에 유리한 강점이 있고, 27개소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소재해 풍부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하고 풍부한 그린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레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위치 준비에 매진해 왔다.

이 같은 강점에 바이오 기업이 꾸준하게 전북을 찾았고, 오가노이드분야 국내 1·2·3위 기업인 오가노이드사 이온스(주), (주)네스트앤바이오, 강스텔

바이오텍을 포함해 선도기업 7개사가 2,219억원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말 발표 평가 과정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도내 대학 등은 글로벌 네트워크(MIT, 하버드, 존스홉킨스, KIST유럽연구소 등)를 구축하고 R&S 사업 등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화단지 발표 직전까지도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시군, 출연기관, 대학, 병원, 기업과 기관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특화단지 유치를 열원하며 결집에 나선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이 가진 바이오 관련 강점을 확인한 만큼 지역에 산재된 바이오 역량을 한데 껴모아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5월에는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구성했으며 전북 특구 R&D 활성화, 기업 성장 맞춤형 전주 기 지원사업 추진,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글로벌 협력 중대형 R&D 기획 및 예타당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립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하며 전북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큰 성과로 본다”며 “그동안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산학연관별 및 협회·단체 등 모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김임준 군산시장, 정세균 씨에스윈드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상풍력 산업화 기반 조성 ‘박차’

전북자치도·씨에스윈드·군산시 등, 생산공장 구축 협약
350억원 규모 타워·하부구조물 생산시설 구축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해역에서 친환경 풍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김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공장 구축과 함께 도내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 제품이 도내 해역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앞으로 건설될 해상풍력단지(서남권 2.4GW, 군산시 1.6GW 등)에 도내 생산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 인력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지원, 씨에스윈드의 생산시설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씨에스윈드는 35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군산 산단 내 10만㎡(약 1만 5천여 평) 규모의 풍력 타워 및 하부구조물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납품 시기 등을 감안, 오는 2027년부터 공장구축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는 관련 기자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씨에스윈드는 도내 인근 해역·내륙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전북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씨에스윈드가 100%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인 씨에스 에너지의 본진 소재지를 전북자치도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는 150여 명의 고용 창출과 풍력단지 개발 조성에 따른 연관 산업 효과 등 생태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의 도내 이동을 적극 유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핵심인력 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기자·군산=이재춘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 광역 운송망에 자율주행서비스

전북자치도,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전국에서는 최초... 자율운송상용차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신청했으며, 현장실사와 실무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에서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군산~전주 간 화물운송 자율주행은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의 61.3km 구간(2B(기업 간 거리)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하여 특수화물을 실어 나르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

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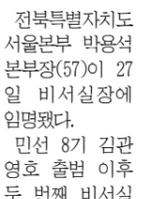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2년 군산 새만금 및 KTX 익산역 일원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지구가 세번째 지구로, 지금까지의 시범운행지구와 차별화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로 군산~전주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북자치도 주력산업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부서·기관 간 협업으로 자율운송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물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는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비서실장에

박용석 전 서울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 박용석 본부장(57)이 27일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민선 8기 김관영 영호 출범 이후 두 번째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 실장은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 30여 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한 베테랑이다.

군산 출신인 박용석 실장은 도지사 경선 당시 김관영 후보의 정책본부부장을 맡았으며, 당선 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본부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박 실장은 매사 경청하고 신중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소통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진영 의원을 오랜 기간 보좌하면서 균형각각을 바탕으로 여야에 걸쳐 무난하게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실장의 발탁 배경으로는 서울본부장 당시 전북자치도법 국회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울에서 김 지사를 도와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점, 김 지사 도청 입성 초기부터 밀접하게 교감하는 등 도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3년 차 시작을 앞두고 정부와 균형각각을 갖춘 박용석 비서실장이 도의 안방 살림을 맡게 됐다.”라면서 “김관영영호의 주요 정책 아젠다 여적 추진과 각 실 국과 조울 등을 통해 도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자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골프트로피·상패제작전문 국제로타리용품 대리점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팜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우산 /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월



각종명패

각종상패



각종트로피

전주시 덕진구 떡전로7 (금암동794-8)
사무실 : 063-232-2323
F A X : 063-286-4665
E-mail : mp2322323@daum.net



TOTAL ADVERTISING WORLD

명품종합상패

mpcatalog.cafe24.com